



07. 미래 일기 그리기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일기 ▪ 행동 계획 ▪ 인생계획표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일기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미래 일기를 작성할 수 있다. ▪ 미래 일기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다양한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인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진로지도의 첫 걸음>

이번 차시에서는 미래 일기 그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볼까 합니다. 선생님들 많이 진행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굉장히 즐거운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미래 일기 작성법이라든지 이를 어떻게 상상해야 될지 실습도 해보시고, 스마트 행동계획도 세워보고 학생들과 미래 명함도 만들어 보고 파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파티 마지막에 하듯이 학생들하고 수업이 끝나면 마지막에 파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학생들하고 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유서 써 보기도 해 보는데 이런 것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일기 작성법입니다. 미래 일기라는 것이 우리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 살아가고 있을 나의 모습이 되겠죠? 생생한 미래 모습을 선명하게 보는 것이 미래 일기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주로 성인들에게도 괜찮은 동기 부여 방법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을 미래의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지위, 명예, 자격증, 진로계획, 이런 것들 해보면 꿈에 부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좋습니다. 미래 일기를 하려면 연필만 있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도화지라든지 여러분 다채롭게 쓸 수 있는 색연필에서 부터 마커 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 별로 작업 하는 것도 좋고요, 개별로 직접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오려서 만들 수 있는 문구들을 조금 준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30년 후의 미래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예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깐, 그렇게 격려 해주셔도 좋겠죠. 예쁜 학생들 눈에 튀다 보니깐 이렇게 그려보고 텍스트로 써도 좋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좋습니다.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책을 통해서 미래의 이력서를 봤는데요, 이 원서를 이미 젊었을 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의 미래의 이력서에 의하면 나는 1960년에 박사학위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비록 1년 늦었지만 그 비전은 실제로 성취되었다. 나는 34세에 한국 문교부에 고등국장이 되었으며 39세가 되던 1969년부터 이미 단과대학 학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이력서를 아주 구체적으

로 기록을 해서 실제로 이런 꿈들을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과 미래 실습을 해 볼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기를 써보도록 하는데, 날짜부터 써보도록 합니다. 오늘 날짜. 오늘날짜 써보도록 하구요, 일자, 월일 까지 써보고 미래 30년 후에 미래를 날짜 하고 연도하고 월일을 써보도록 합니다. 그것을 글로 써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된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하는데 학생들 대부분 눈을 감고 미래를 상상 하도록 자극하며 하면 더 좋습니다. 눈을 감도록 요구해주시고 30년 후에 학생이 눈을 뜨면 30년 후에 어느 날 아침이 되어있는 것이죠. 아직도 눈을 뜨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미래 속에 상상 속에 30년 후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의 형태, 집안의 구조, 자신의 미래의 얼굴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자신이 이룬 성과나 업적이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때 조금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면서 이런 이야기들 상상을 하도록 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림으로 그려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미래일기를 작성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10년 또는 20,30년 후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상상하며 기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하루, 일주일도 괜찮긴 하지만, 하루라는 어떤 일과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인 것처럼 기록해보면 더 좋겠죠? 미래에 자신이 가지고 있을 집이나, 차나, 직업이나 직급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담으면 좋겠죠? 청소년이라면 다니고 있을 학교나 학위 이런 것도 좋겠죠? 자격증이라든지 진로계획이라든지, 비전이나 목표나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 담아서 만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있을 감정이나 느낌이나 보람이나 현재와 완벽하게 달라진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도록 도와주면 더 좋겠죠? 이런 것을 글로 쓰도록 하고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면 좋은데요. 학생들 보니까 테마를 가져서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모양이 태극기 모양도 있고, 사계절 모양도 있고, 헤어 디자인 한 친구는 헤어스타일 가지고 한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각자의 테마를 가지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의 이력서를 써보도록 합니다. 실제 이력서처럼 학력사항, 중학생들 같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학교 별로 쓰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학력상도 써보고, 경력상, 취업이나 이직이나 창업이나, 업적 자신이 만든 상품이나, 기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 좋게요? 자신이 받았던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 대외적 많은 활동, 봉사, 종교 활동, 이런 것들 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길로 자신을 표현 했는데요, 제가 해강 중학교라는 부산의 중학교에 특강을 나갔었는데요, 인생 로드맵을 자신이 가는 길로 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서부터 자신의 꿈에서부터 요비명에서부터 건축가가 되는 길을 걸었어요. 김하늘이라는 친구는 하늘을 쓰인 인생설계도 이름도 적고 헤어 디자이너로 걸어갈 것인지, 또 다른 친구는 인생설계를 자 모양으로 해서 단계별로 눈금 별로 해서 올라가게 해 뒀어요. 어떤 친구는 현재에서부터, 고등학생에서부터 부모에서 노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한단계 단계 계단을 밟아나가듯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이런 말도 써놓고 꿈을 다지는데요, 학생들 진로 지도 하면 참 좋겠죠?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로지도의 이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상상 훈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스마트 폰, 게임기, 컴퓨터, 카메라, 등등 미래에도 과연 현재와 같은 모습일까요? 미래에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없는 새롭게 탄생할 제품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미래의 도시, 미래의 우리 모습, 미래의 생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겁니다. 미래의 도시를 지금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의 자동차 도로,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요? 미래의 자동차 도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미래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보세요. 그렇다면, 미래의 열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열차를 상상해보세요. 이 밖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미래 직업, 변화된 도시, 사람들의 근무 방식, 패션 스타일, 미래의 물건들... 현재 우리가 보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을 상상해보세요. 미래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미래 상상 훈련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나씩 질문을 하며 지도해보세요. 그럼, 2045년의 미래의 일상을 함께 상상해 볼까요? 완벽한 생활패턴 인식 시스템으로 잠에서 깡니다. 그리고는 3D 음식물 프린터로 아침식사를 하고, 몸에 이식된 바이오 컴퓨터로 스케줄링을 체크합니다. 설거지는 로봇이 하고, 무인자동차로 회사까지 자동주행으로 출근을 합니다. 미래형 고속열차를 통해 세계출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시간 탄력제 근무로 인공지능 비서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후 3시면 퇴근을 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집에 온 후 태양광에너지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매매하고 콘투어 크래프팅으로 하루만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마이크로 칼리지에서 수업을 청취하면서 제2의 업무를 봅니다.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민주주의 정치에도 참여를 합니다. 저녁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 12시간 떨어져 있는 연인과 연애를 하고 평균 결혼 나이는 50세가 됩니다. 밤에는 홀로그램 TV를 즐기고, 바로 치료가 가능한 줄기세포를 처방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일상을 생각해 보게 하고 각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한 행동계획,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미래의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합니다. 스마트한 행동계획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성취가 가능하고 결과지향적이며 시한이 설정되게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스마트한 미래 계획 샘플을 하나 살펴볼까요? 나는 0000년 1년 동안에 친구, 친척, 선후배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루에 다섯 통씩 연간 1,825(365x5) 통의 안부전화를 걸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타산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던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화를 걸어서 가까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 자체를 즐길 것이며, 기회영역, 활동영역 또한 한층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품도 길러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분명 의외의 유력한 협력자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다음 샘플을 볼까요? 다음 샘플입니다. 나 000은 00년 00월00일부터 매일 아침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하루 2시간씩 역량개발에 힘쓰겠다. 이 실천행동을 지속해나가면 올해 안에 진학하려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진화된 내 역량을 바탕으로 3년 이내로, 어떠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이다. 자, 이 글을 보면 본인의 이름을 작성했고, 구체적이며, 측정이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게 작성됐습니다. 또한 시한이 설정되고 결과지향적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샘플에서 구체적인 미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 샘플을 예시로 스마트 전략에 따른 미래의 계획을 작성해보도록 지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한 미래의 커리어 로드맵을 그려보도록 커리어 로드맵을 쓸 수 있도록 해보세요. 30년 후, 20년 후, 10년 후, 3개월 후.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야 될 행동을 로드맵으로 만들어 보라고 지도해 보세요.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저는 마지막 저학년 수업 때 미래 명함 만들기를 하고, 가상 동문회 파티를 하는데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명함이라는 것은 미래 자신의 모습을 보다 더 생생하게 꿈꾸기 위한 명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비즈니스맨들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디자인 해보고 그 안에 자신의 소속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심지어 사는 곳 주소라든지 사무실 위치까지 써보고 경력도 써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학생들은 A4 용지에 찢어서 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컬러풀하게 코팅까지 해서 만들어오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학생들 인원수만큼 가져오게 해서 마지막 날 파티를 하는데요. 다른 학교에 가보니까 명함을 실제로 만들어놔서 붙여놨더라고요. 취향저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판사다 되고 싶다는 어떤 학생의 이야기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명함들 주변에 많이 받으시죠, 그런 명함들 버리지 마시고 그 중에 잘 만든 명함 있으면 실제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개인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자신의 프로필 보여주는 것도 좋겠죠? 잘 만들어진 명함도 보여주고. 스텐딩 파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음료하고 먹을 것을 다 사왔는데요. 제가 5개 반을 했는데요. 5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가져오게 하고 저는 조금만 보탬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먹을 것 가져오도록 하시면 굉장히 유쾌한 진로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나는 교사라고 했더니 나는 교장이야 어떤 학생은 지나가는데 나는 교육감이니까 너네들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굉장히 유쾌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파티 열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50년간의 인생 계획, 한번 써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구분해서 자신의 생애 계획을 학생들이 꼼꼼하게 써보도록 하고 학생들 아직 결혼도 안했지만, 어떤 배우자하고 언제 결혼 할 것인지 자녀는 언제 낳을 것인지 다 계획해 보라는 것입니다. 키득키득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묘비명, 또는 신문에 부고란, 직접 작성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열정의 불씨 하나 남기고 간 남자. 딱 한 줄로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저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자신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온 이 여기 잠들다. 비록 그는 사라졌으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강사와 작가로 활동하며 나눠줬던 열정의 불씨 하나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썼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 길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학생들에게 자신의 부고란, 어떻게 쓰고 싶은지 해보라고 해보고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씩 유서 쓰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이라고 하면 유서 쓰다 보면 울컥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으실 거 것 같은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한마디의 눈물이 울컥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고 싶은 아들에게 이렇게 눈물이 펄펄 터지고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익숙한 것과 결별이 있죠? 익숙한 나와 결별식을 가져보는 의미에서도 유서를 써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유서를 써보기도 하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써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미래를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